

2025년 1/4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2024. 12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시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점 : 2024. 12월 기준
- 분석대상 : 141개 응답 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 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 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응답	37	104	38	103
비중	26%	74%	27%	73%

업종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응답	20	25	35	19	18	24
비중	14%	18%	25%	13%	13%	17%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 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한 응답 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 업체 수} - \text{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text{전체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 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2025년 1분기 전망 BSI '86.5', 4분기 실적 BSI '66.7'
 - 실적 BSI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3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음. 이는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금리 하락이 기업 자금조달 환경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항목별 전망 BSI : 매출액(92.2), 설비투자(83.7), 영업이익(83.0), 자금사정(83.0)
 - 업종별 전망 BSI : 기타운송장비 및 방산(122.2), 철강·금속(89.5), 전기·전자(85.8), 자동차·부품(80.0), 기계·장비(65.7)

- 응답 업체 68.8%, 올해 목표치(영업이익)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10% 이상 미달(41.1%), 10% 이내 미달(27.7%)로 68.8%가 목표 미달성으로 응답
 - 연간목표 달성(23.4%), 10% 이내 초과 달성(5.7%), 10% 이상 초과달성(2.1%)로 31.2%는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응답
 - 반면 투자실적에 대한 올해 목표치 달성은 45.3%로 영업이익 대비 14%이상 달성

- 2025년 경제성장률, 응답업체의 93.6% '2% 미만' 전망
 - 기업현장에서의 예상치(기관별 평균 예상치 2%), 29.1%는 '0% 이상 0.5% 미만', 25.5%는 '1.5% 이상 2% 미만', 14.9%는 '0.5%에서 1% 미만', 14.9% '0% 미만', 9.2%는 '1% 이상 1.5% 미만'이라고 응답

- 2025년 내수판매 전망에 대해 27.2%는 ‘-10% 이상 0% 미만 감소’
2025년 수출전망은 28.9%는 ‘금년수준’
 - 내수판매 전망 : -10% 이상 0% 미만 감소(27.2%), 금년수준(24.3%),
-20% 이상 -10% 미만 감소(14.6%), 0% 이상 10%
미만(14.6)
 - 수출판매 전망 : 금년 수준(28.9%), -20% 이상 -10% 미만 감소(26.3%),
-10% 이상 0% 미만 감소(21.1%), 0% 이상 10% 미만
증가(10.5%)

- 2025년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리스크 요인에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28.1%)
대외리스크에 ‘트럼프 2기 통상정책’(34.4%)로 꼽아
 - 대내리스크 :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28.1%) ‘물가 변동성 확대’(25.4%),
‘건설·부동산 시장 위축’(14.8%), ‘가계부채 심화’(11.7%),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악화’(11.3%)2025
 - 대외리스크 : ‘트럼프 2기 통상정책’(34.4%), ‘韓수출·산업경쟁력 악화’(14.
4%), ‘전쟁 등 지정학 긴장 장기화’(13.0%), ‘고환율 기조’(1
2.3%)

-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 경제정책 분야는 ‘인플레이션(물가)관리’(26.4%)와
‘수출확대 및 공급망 강화’(25.3%)
 - 중점으로 뒤야할 경제정책 분야 : 인플레이션(물가)관리(26.4%), 수출확대 및
공급망 강화(25.3%), 기업부담입법·규제완화(13.5%), 성장잠재력 확대(저출
산·고령화)(10.8%), 미래전략산업 지원강화(10.4%), 가계·기업 부채관리
(10.1%)
 - 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인플레이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
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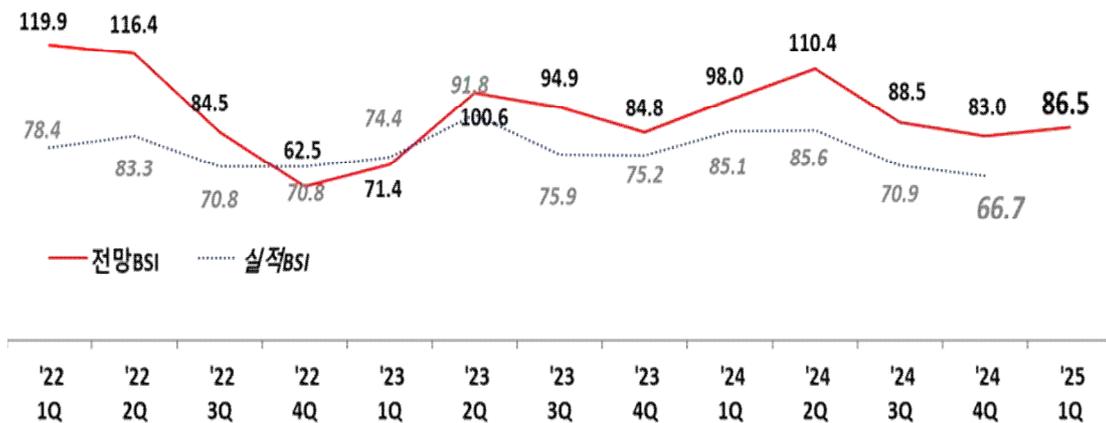
Ⅲ

2025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5년 1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86.5'으로 조사되어, 기준치(100)를 하회했음. 2024년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 BSI는 기준치를 밑돈 '66.7'로 조사되었음.
- 실적 BSI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3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음. 이는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금리 하락이 기업 자금조달 환경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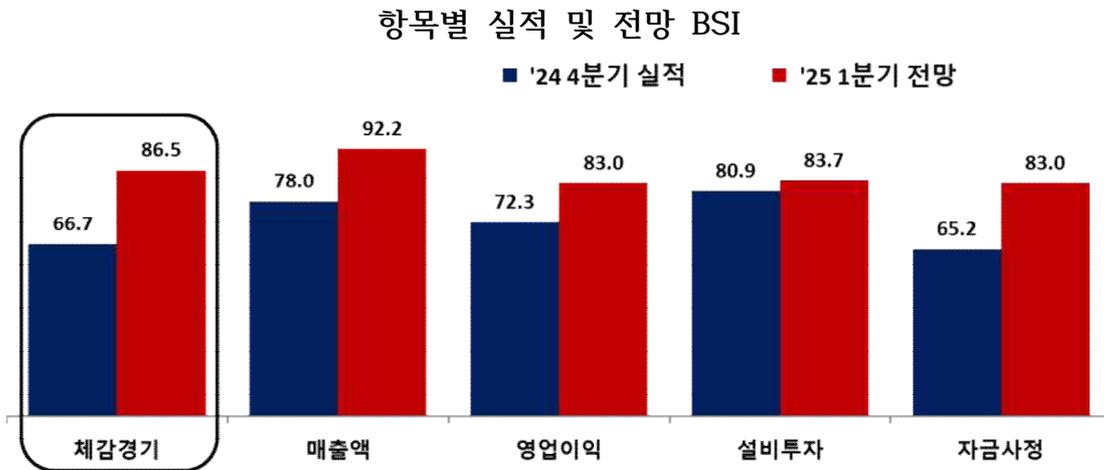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 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5년 1분기 항목별 전망 BSI는 매출액(92.2)와 설비투자(83.7), 영업이익(83.0), 자금사정(83.0)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했음.
- 2024년 4분기 항목별 실적BSI 또한 설비투자(80.9), 매출액(78.0), 영업이익(72.3), 자금사정(65.2)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밑돌았음.
-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주요 수출국의 경제 성장 부진, 국내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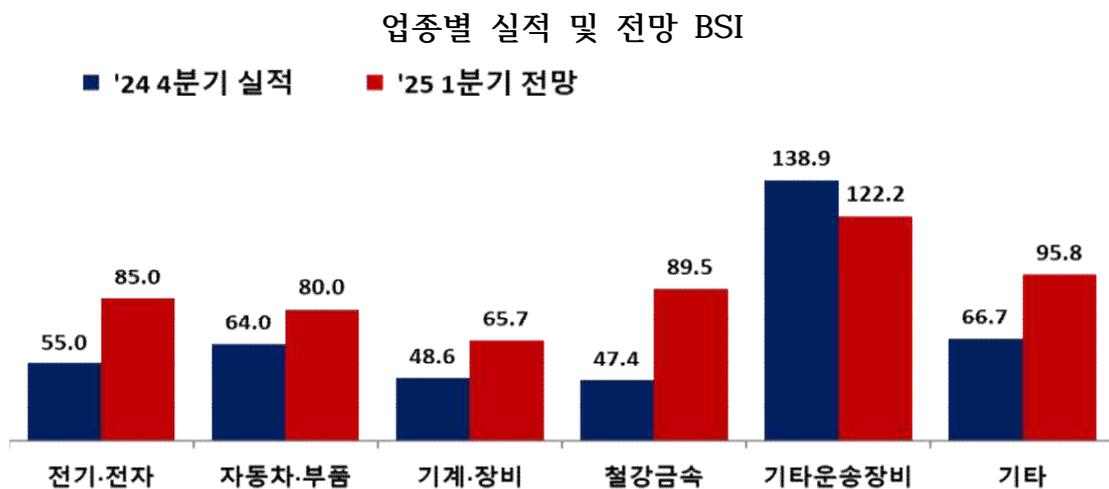
3. 업종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5년 1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창원산업의 주력 제조업인 기타운송장비(122.2)로 조사되었고, 반면 철강금속(89.5), 전기·전자(85.0), 자동차·부품(80.0), 기계·장비(65.7)는 기준치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 ○ 기타운송장비는 2024년 한해 동안 전망과 실적BSI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 했음. 특히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 확대와 항공기 부품 수출이 창원 지역의 수출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적 BSI와 전망 BSI 10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철강의 실적BSI 저조는 중국의 내수 부진 및 엔저지속에 따른 저가물량공세와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보임. 향후 동남아시아·중동 등의 신흥시장을 통한 산업생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망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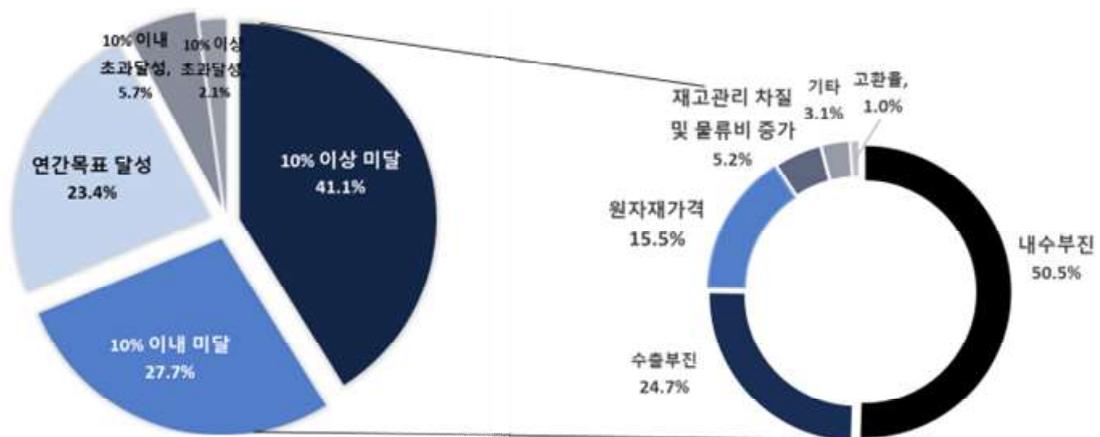
기계산업의 경우 수출 감소와 향후 트럼프 정부 2기의 보편관세 현실화 우려와 산업투자 위축에 따른 對미 수출감소 전망으로 인해 전망 BSI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4. 올해 목표치 달성 여부(영업이익, 투자실적)

- 연초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업체의 41.1%가 '10% 이상 미달', 27.7%는 '10% 이내 미달'로 답해, 68.8%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음.
- 반면 '연간목표 달성'으로 답한 비중은 23.4%로 나타났고, '10%이내 초과달성' 5.7%, '10% 이상 초과달성'은 2.1%로 답해 전체 31.2%는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응답했음.
- 목표 미달성에 대한 핵심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내수부진이 5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출부진'(24.7%), '원자재 가격'(15.5%),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5.2%), '기타'(3.1%), '고환율'(1.0%) 순으로 나타났음.

올해(영업이익) 달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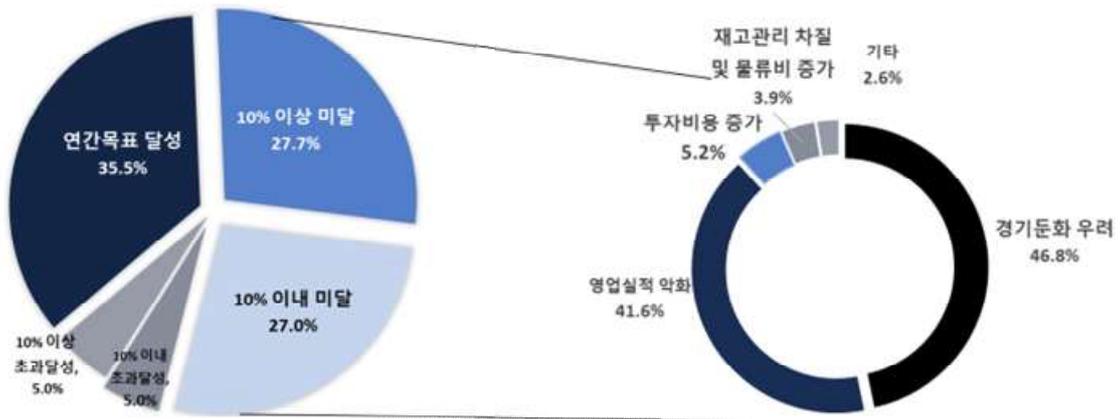


- 연초 계획한 투자실적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한 업체의 27.7%가 '10% 이상 미달', 27.0%는 '10% 이내 미달'로 응답해 54.7%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봄.

○ 반면 ‘연간목표 달성’으로 답한 비중은 35.3%로 나타났고, ‘10%이내 초과달성’ 5.0%, ‘10% 이상 초과달성’은 5.0%로 답해(총 45.3%) 투자실적은 영업 이익에 비해 14% 이상 달성한 것으로 응답했음.

○ 목표 미달성에 대한 핵심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둔화 우려’ 46.8%, ‘영업실적 악화’ 41.6%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투자비용 증가’(5.2%),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3.9%), 순으로 나타났음.

올해(투자실적) 달성 여부



IV

기업이 바라본 2025년 경제전망

1.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 각 기관별로 경제성장률을 평균적으로 2%로 전망한 가운데, 기업현장의 예상치는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29.1%는 ‘0% 이상 0.5% 미만’, 25.5%는 ‘1.5% 이상 2% 미만’, 14.9%는 ‘0.5%에서 1% 미만’, 14.9% ‘0% 미만’, 9.2%는 ‘1% 이상 1.5% 미만’이라고 응답해 설문대상의 93.6%가 각 기관별 평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나머지 6.4%는 ‘2% 이상 2.5% 미만’으로 응답하였음.

발표기관	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KDI)	2.0%
블룸버그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한국은행	1.9%
국제통화기금(IMF)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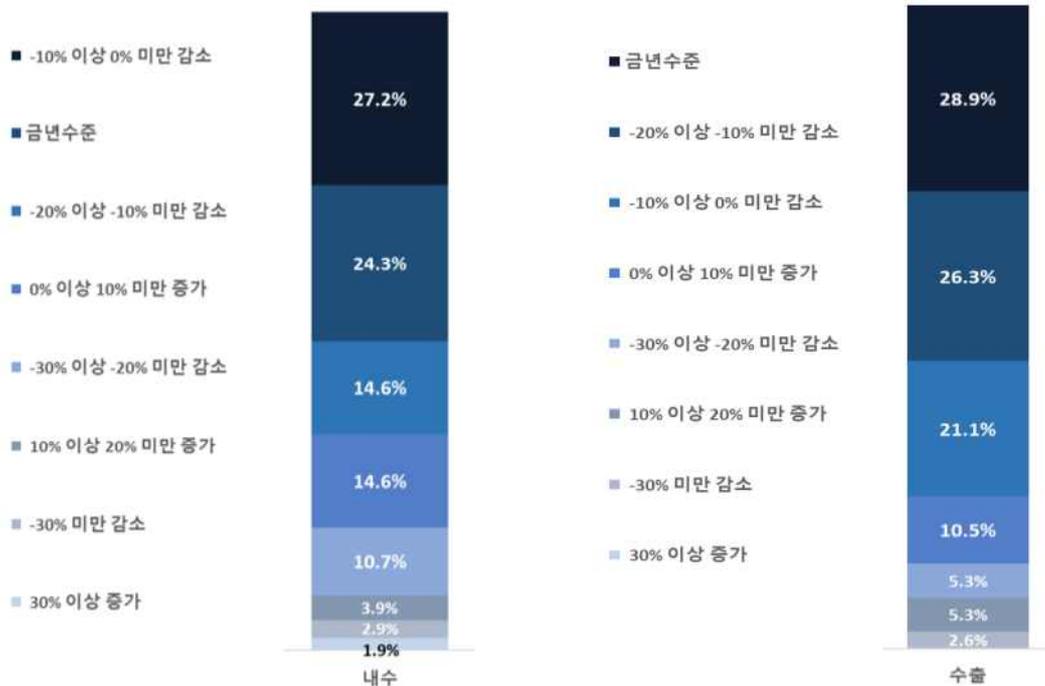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 2025년 내수판매와 수출전망(2024년 대비)

- 올해 대비 내년 내수판매가 어떨 것으로 예측하는지 묻는 말에 응답 업체(내수판매 업체)의 27.2%가 ‘-10% 이상 0% 미만 감소’로 응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년수준’(24.3%), ‘-20% 이상 -10% 미만 감소’(14.6%), ‘0% 이상 10% 미만’(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수출판매 전망의 경우 28.9%로 ‘금년 수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 이상 -10% 미만 감소’(26.3%), ‘-10% 이상 0% 미만 감소’(21.1%), ‘0% 이상 10% 미만 증가’(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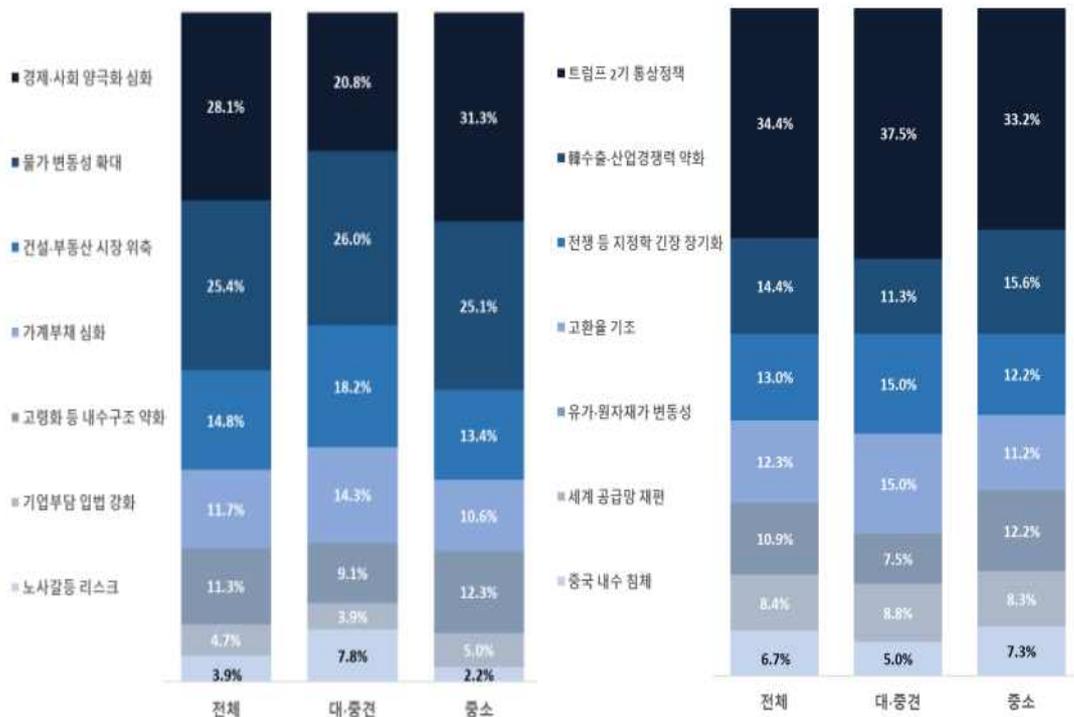
2024년 대비 2025년 내수판매(좌) 및 수출판매(우) 전망



3. 2025년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리스크

- 2025년 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28.1%)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음. 다음으로 ‘물가 변동성 확대’(25.4%), ‘건설·부동산 시장 위축’(14.8%), ‘가계부채 심화’(11.7%),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악화’(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대외 리스크의 경우 ‘트럼프 2기 통상정책’(34.4%)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韓수출·산업경쟁력 약화’(14.4%), ‘전쟁 등 지정학 긴장 장기화’(13.0%), ‘고환율 기조’(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트럼프 2기 통상정책’(37.5%, 31.2%)을 가장 큰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음.

2025년 경제를 위협할 대내(좌)·대외(우)리스크 요인(복수응답)



4.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중점을 뒀야 할 경제정책 분야

- 2025년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당국이 중점을 뒀야 할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질문에 ‘인플레이션(물가)관리’에 26.4%가 답했음. 다음으로 ‘수출확대 및 공급망 강화’(25.3%), ‘기업부담입법·규제완화’(13.5%), ‘성장잠재력 확대(저출산·고령화)’(10.8%), ‘미래전략산업 지원강화’(10.4%), ‘가계·기업 부채관리’(10.1%) 등의 순으로 답했음.
- 현재 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인플레이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2025년 경제 회복을 위해 중점으로 뒀야할 경제정책 분야(복수응답)

